

“성서공단 희망의 등대가 되립니다”

- 성서공단지회 태경산업현장위원회 조재식 대표, 이병철 부지회장 인터뷰

맹정은 회원

1995년 설립된 태경산업은 산업용 및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체로 굴착기, 지게차, 탱크용 고무호스를 제조하며, 생산되는 호스 종류만도 1,000종이 넘는다.

2014년 태경산업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현장은 조금씩 변했다. 수차례 이어진 천막농성, 파업, 부당노동행위 고발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하나둘씩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동의 없이 설치된 24대의 CCTV는 4대(안전용)만 남기고 철거하였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였으며, 일 년 네 차례 상여금 지급, 환기구 설치, 냉방시설 도입까지 쟁취하였다. 관리직의 폭력적 언행과 횡포는 노조의 대응으로 멈췄다. 무엇 하나 쉽게 이룬 것은 없었다.

하지만 2022년, 상급단체인 성서공단지회가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상황이 급변하였다. 회사는 노조활동 시간을 축소하고 65세

정년을 62세로 낮추자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2025년 7월, 단협은 해지되었고, 10월 현재 ‘무단협 상태’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10월 16일, 태경산업 앞 농성장을 찾은 날은 일곱 번째 천막농성이 시작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6월 23일부터 매일 끈질기게 요청했던 특별근로감독 실시가 받아들여져서, 전날인 10월 15일에 근로감독관 13명이 태경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재식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산업현장위원회 대표(이하 조재식 대표)와 이병철 성서공단지역 부지회장(이하 이병철 부지회장)이 입사한 2012년에 비해, 지금은 3개 공장으로 확장되어 1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그중 40명은 이주노동자다.

조재식 대표와 이병철 부지회장이 노동조합 결성을 결심하게 된 것은 2014년이였다.

“집에서도 옷 갈아입을 때는 방문을 닫고 갈아입는데, 작업장에 남녀 탈의실이 없었습니다. 옷도 바닥 한구석에 쌓아두었고, 출근해서는 누가 입던 옷인지도 모른 채 입었습니다. 세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직원들 술자리에서 ‘회사에 탈의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자’는 말이 나왔고, 그러다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의 첫 요구조건이 ‘남녀 탈의실’ 설치였습니다.” - **이병철 부지회장**

150도 지옥과 ‘반창고 처방’

전체 제조공정이 고무호스가 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고무호스 주변은 150도 고온이 유지된다. 고무 원액을 150도 고온 스팀이 분사되는 압출기에 넣어 30여 분간 고무호스 형태로 만드는 것이 공정의 시작이다. 호스 종류에 따라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실이나 철사를 감고 다시 고온 스팀 압출기에 넣어 고무를 입히며 필요한 모양으로 재단한다. 이때 금형에 고무가 들러 붙지 않도록 이형제를 금형 내면에 뿌린다. 호스가 나오면 고온고압의 물로 호수에 묻은 이형제를 세척, 검사 후 포장한다.

특히 원재료를 압출기에 투입하거나, 압출기에서 제작되어 나오는 호스 앞부분을 빼내는 작업은 호스 크기에 따라 2~4명이 밧줄로 당겨서 뽑아내는 고된 과정이다. 빼

곡하게 놓인 11대의 기계가 뽑어내는 열기까지 더해져서, 일하겠다고 들어온 한국인 노동자들은 여름이 오기 전 이곳을 떠난다. 결국, 오래 근무한 정주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만 오롯이 버티며 일하고 있다.

“150도 압출기에서 호스가 나올 때 튼 이형제로 정강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지름 1센티미터가량의 화상 흉터를 보여주심). 지금은 살이 차올랐지만, 그때는 구슬 반 잘라놓은 모양으로 구멍이 났어요. 많은 노동자가 화상을 자주 입는데, 병원에 가는 건 고사하고 응급약품도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응급약품 구비를 요구해서 비치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떨어진 금형에 발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화 지급도 요구했죠. 작업복도 함께요.” - **조재식 대표**

“면장갑 두 개를 겹쳐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뜨거운 호스를 물에 담가서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고무장갑 끝이 찢어진 줄 모르고 작업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손끝이 부풀어 올라서 병원에 간다니까, 반창고 붙이면 되지 않냐,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하느냐고 말하더군요. 산업재해니까 신청해서라도 병원에 가겠다고 하니, 결국 병원비는 지원해 주고 공상 처리했습니다. 그나마 일하다 다쳐서 간 병원비를 지원받게 된 것도 노조 활동 덕분입니다.” - **이병철 부지회장**

오후 4시 무렵이면 회사 대표가 전도한 몇몇 노동자들을 모아 2층 회의실에서 성경



▲ 2025.10.16. 태경산업현장위 조재식 대표와 이병철 부지회장. 사진 : 맹정은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종종 갖는다. 태경산업 대표의 노골적인 종교 활동 강요는 지역에서도 유명하다. 하지만 무더위가 심해 노조에서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고 이동형 에어컨(일명 코브라 에어컨) 수요조사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노동자들은 “회사에 찍힐까 봐” 신청조차 주저한다. 결국, 무더위를 견디지 못한 채 얼마 후 추가 신청을 했다. 비록 조합원은 아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건강도 노조가 챙겨야 할 일이다.

7~8년 전 사측의 지원 속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그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당황했다. 결국, 복수노조 위원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해산신청까지 했다. 복수노조가 물 건너가자, 최근에는 노사협의회의 노측 위원 선거를 부당하게 진행하였다.

“선거인 명부에 사측 인사들 이름이 있는 걸 봤어요. 선거관리위원도 뽑지 않고,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 3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죠. 저도 출마해서 4명의 후보가 있

었는데, 저만 당선이 안 됐습니다. 조합 간부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정 선거이기에 노동청에 고발했어요. 노동청이 이의제기는 받아줬고, 회사 측은 재선거를 준비 중입니다.” - 조재식 대표

일곱 번째 파업, 단체협약 개악에 맞서다

2024년, 회사는 경북지역에서 노조 깨기로 유명한 심상수를 인사 노무담당 상무로 영입했다. 이후 회사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은 과거로 후퇴한 내용이었다. 정년을 62세로 낮추고, 1인당 연 80시간이던 노조 활동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노측 교섭위원을 6인(조합원 4명, 상급단체 조합원 2명)에서 3인(조합원 1명, 상급단체 조합원 2명)으로 절반을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거부하자 근무시간의 교섭 참여 불허를 명분으로 교섭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태경산업현장위원회의 일곱 번째 파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 2016.10.16. 태경산업현장위 천막농성장. 사진 : 맹정은

1년이 넘는 장기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생계유지가 염려되었다. 더불어 조재식 대표는 12월에 정년을 앞두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투쟁 사업장이라 ‘금속노조의 장기투쟁 기금’ 지원 덕에 조합원들이 최저생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코앞입니다. 투쟁이 마무리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사업주 구속이나 집행유예가 나와서 향후 노조 활동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 1년 넘는 우리의 투쟁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성서공단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게 싸우더라도 반드시 이긴다는 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 조재식 대표

“성서공단은 15명 안팎의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투쟁은 고령자든 이주노동자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단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구입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성서공단지회에 찾아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알려주는 ‘불빛이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법대로, 협약대로 해 달라는 소박한 바람으로 1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당당하게 노동3권을 누리는 사회가 저의 소망입니다.” - 이병철 부지회장

천막 농성장 비닐은 손끝이 닿자 바스르졌다. 1년 동안 바람과 비, 추위와 어마어마했던 폭염을 견뎌낸 흔적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흘 뒤, 태경산업현장위원회는 특별근로감독을 이끌어낸 전면파업을 마무리하고 10월 20일부터 현장투쟁으로 전환, 1년 만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알터**